



오일을 위한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쟁을 위한 오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 조 달러의 돈을 구덩이에 던져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미군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오염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군은 12억 미터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였는데 이는 매년 도로에서 약 2억 5700만대에 달하는 차가 방출하는 배출양에 맞먹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세계에서 석유 (매년 170억 달러) 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제도적 소비국이며 80개 국가에 800개의 외국 군사기지를 보유한 세계에서 제일 큰 토지 소유주입니다. 미군은 2008년 한 달 동안 이라크에서만 120만 배럴의 석유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3년 군부 평가에서 미군이 소비하는 연료 소비량의 3분의2가 전쟁터에 연료를 제공하는 차량에 사용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환경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궁극적인 악순환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전쟁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전쟁을 유발한다고 선포하면 인간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현실을 잊게 만들며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3

일부 전쟁의 주요 동기는 지구, 특히 석유와 가스를 오염시키는 자원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부유한 나라들의 가난한 나라들의 전쟁 발동은 인권 침해나 민주주의의 결여나 테러 위협과 상관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전쟁은 대부분의 환경 훼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외국과 본국에 위치한 군사 기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미군은 미국 수로에서 세 번째로 큰 오염 유발자입니다.